

I. 회의명 : 제162차 OECD 농업위원회

II. 개최일시 및 장소 : 2014.4.23~24일, 파리 OECD 본부 회의장

III 출장자 : 송주호 (농림축산식품부 기획통계담당관실 조혜윤 사무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황영기 과장, 고선욱 주임 동행)

IV. 회의 주요 내용

- (2015-16 작업계획 및 예산(PWB) 방향) 회원국들은 2015-16년의 작업계획 및 예산 수립을 위해 이틀간에 걸친 열띤 논의를 통해 최종 PWB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음. 사무국이 제시한 PWB초안에 포함된 사업의 총소요액이 가용예산의 106%에 해당되어 일부 제외시킬 과제 혹은 추가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 초안에 제시된 핵심(core)의제(회원국 공통관심사업)는 모두 그대로 채택되었으며 선택(choice)의제중 2개 프로그램(농식품정책이 식품관련 건강에 미치는 영향, 탄소무배출농업으로의 이동)이 제외되었고,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음. 한편 영국이 제시한 “가축질병에 대한 연구”와 프랑스가 새로 제안한 “환경, 사회적 요인의 무역에 대한 영향”은 일부분을 “국제 규제 공조”프로그램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 한국이 지난 2월 제시했던 과제(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글로벌 벨류체인, 기후변화 관련 과제)들은 모두 포함되었음.
- (농업의 새로운 방향) 최근 새롭게 개정된 미국 2014 농업법, EU CAP 2013 개혁, 일본 2013 농정개혁에 대해 해당국가의 정책소개가 있었고 회원국들은 이를 토대로 의견을 교환함.
- 우리 측 대표는 일본과 한국 농업은 상황이 비슷하기 일본의 농정개혁에 관심이 많으며, 일본의 이번 개혁은 굉장히 야심적으로 보이며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서 정치적 혹은 농업인단체로부터 수정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질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이 개혁안은 정부내에서 부처간 협의를 거친 것이며 쌀 농가등과도 원칙적인 합의는 된 상태라고 답변함.
- (글로벌 농업포럼) 금년 12월 농업위 회의 전날 개최되는 글로벌 농업포럼에서는 농산물 무역을 주제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새로운 무역이슈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고 회원국들이 적극 협조하기로 함.
- (농업위원회 활동 확산) 농업위원회에서는 회의 결과물을 웹사이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적극 전파하고 있으며, 향후 각 회원국들도 사무국과의 협조를 통해 OECD 농업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전파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V. 관찰 및 평가

- 이번 회의에서는 2년 주기로 예산 및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OECD의 방침에 따라

농업위원회의 2015-16 작업계획 및 예산(PWB)을 사무국의 초안을 토대로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음.

- 사무국에서는 농업위원회 이외의 다른 부서(과학위원회, 건강위원회, 개발위원회)와, 다른 국제기구(FAO, World Bank 등)와의 공조 사업은 최대한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였으며, 이번에도 일부 사업(Harnessing Science,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은 일부 회원국들이 우선 순위가 낮다고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바꾸거나 일부 연구 내용을 삭제하고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유지하였음.
- 지난 GSSE 개정작업을 통해 미국의 Food Stamp가 GSSE에서 배제된데 대해 프랑스는 CSE 개정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당분간 새로 개정된 GSSE의 국가별 비교를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등 농업보조(PSE, GSSE, CSE, TSE 등)분류방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이 과제가 되었으므로 향후 과제 진행에 적극 참여하여 DDA 협상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미국, EU, 일본이 최근 농정을 대폭 개혁하였으므로 이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위험관리(Risk Management)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며, EU는 28개 회원국간의 형평성과 환경규제를 강화하였음. 특히 일본은 쌀에 대해 생산조정을 폐지하고 직접지불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있어서 쌀 관세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될 것임.
- OECD 활동을 적극 전파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OECD 결과물을 국내 관련 기관에 적극 배포하되, 중요한 내용은 번역해서 발간하고,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의 내용 등을 세미나, OECD 전문가 초청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OECD 전문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